

공공기관 사내대출 급증... 코인투자·주택구입 등 특혜 우려

산은·수은·기업은행 3곳서만
1분기 사내대출 100억 가량 증가

“보통사람들 금융애로 커진상황
사내대출, 특권대출로 보일수도”

올해 들어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은·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내대출은 1분기에만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관리·감독 없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사내대출이 가상화폐 투자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8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사내대출 잔액은 총 1649억13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46억3208만원보다 2억8000만원 증가한 셈이다.

사내대출은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

〈국책은행 사내대출잔액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18년 말	2019년 말	2021년 1분기
한국산업은행	17,392	19,388	23,799
한국수출입은행	6,024	6,272	6,217
중소기업은행	97,366	95,742	102,316
총 사내대출잔액	120,782	121,402	132,332

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대출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국책은행 1분기 100억원 증가

금융공공기관중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국책은행이다. 산은·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1분기(산업은행 5월기준) 사내대출 금액은 1323억3228만원으로 올해 들어 100억원이상 늘었다.

특히 기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1023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말(929억799만원)과 비교해 9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은 1022억6100만원으로 93억4200만원 늘었고, 주택구입자금은 5500만원으로 500

만원 감소했다.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을 보면 사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치 않다. 또 임직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본부 승인이 필요한 타대출과 달리 영업점장 전결로 가능하다. 사내대출 중 상대적으로 쉬운 생활안정자금에 대출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237억9900만원으로 지난해 말(226억1600만원)과 비교해 11억83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활안정자금은 95억5400만원으로 4900만원 증가한 반면 주택구입

자금은 142억4500만원에서 11억3400만원 늘었다.

수출입은행의 사내대출잔액은 62억1728만원으로 올 들어 2억원 가량 늘었다. 수출입은행의 생활안정자금은 54억8127만원으로 지난해 말(52억6916만원)대비 2억1211만원 증가했다.

◆가상화폐 주택자금용도 이용가능성 ↑

일각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이라는 사각지대를 통해 대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자금은 가상화폐 투자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규제 우회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사내대출이 급증한 올 1분기에 가상화폐 투자자도 급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입한 수는 10월 1만3000명에서 11월 10만2000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월 36만7000명, 2월 84만9000명, 3월 111만6000명, 4월 191만5000명이 가입했다. 월별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입금되는 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조9000억원이던 입금액은 4월기준 33조2000억원으로 9배 늘었다.

가상화폐는 현재 법정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직원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사내대출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사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근거당권을 설정하면 LTV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뿐이다. 이 기관들도 생활안정자금시 보증보험서만 내면 대출이 가능해 주택구입자금의 우회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7월부터 DSR 등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보통사람들의 금융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특권대출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5월 실업급여 지급액, 4개월 연속 1조원 넘어서

고용부,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70.4만명에 1조788억 지급 집계
“하반기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누적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한 70만4000명이었다. 전체 지급액은 1조788

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지난해 9월(1조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88억원으로 4달째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이 올해까지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 종료되면서 올해 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4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이 5조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고용개선세에 힘입어 실업급여 신청자도 줄어들고, 하반기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전달 보다 42만2000명 늘었고, 5개월째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8000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통신업, 자동차업의 수출 호조로 가입자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가입자도 3만7000명 늘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9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3.8%)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2만2000명), 연구개발업(1만1000명), 정보서비스업(6000명)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9@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매각·인수 희망가격 2조원 피리

>> 1면 '이베이 본입찰'서 계속

양쪽 모두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이베이코리아 인수만큼 커다란 이벤트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희망가와 입찰 후보들의 인수 희망가의 견해차가 크다. 이베이코리아가 희망하는 가격은 5조원이지만, 기업들의 인수 희망 금액은 3조원대 안팎이다.

당초 지난달 1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입찰이 연기된 이유도 가격 견해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의 유료 회원은 300만명에 달하는데다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라며 “희망 매각가가 높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와 롯데 모두 최적의 가격 산출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재무 상태가 악화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에도 수조원이 들지만, 인수 후에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시간과 투자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한편, 이베이코리아 본입찰 마감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주 중 이베이 본사 이사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